

박람회장 활성화 ‘신해양 수도 전남’ 연다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31일까지 공연·체험·전시 진행
김 지사 “관광객 300만명 유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2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식’에서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강동석 전 박람회조직위원장 등 내빈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통해 ‘신해양 수도 전남시대’를 활짝 연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3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10주년 행사 시작을 알린 기념식은 지난 22일 오후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시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지사, 강동석 전 박람회조직위원장, 여수시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 맞이 홍보 영상·해군의장대 공연이 결집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깃발 입장, 미디어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념식에서 “전남은 한때 비 중”이라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통해 국내 관광 1억명 시대를 활짝 열고, 해외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며 “매우 아름답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남해안·남부권이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여러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1일까지 이어지는 10주년 기념행사는 플라잉위터쇼, 공연예술페스타, 청소년 댄스스트릿 등 공연과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진·포스터 공모전 작품 전시 등이 열린다. 시민이 참여하는 싱어게인 여수, 자원봉사자 결의대회, 탄소 제로 에코 플로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여수는 매년 1,000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박람회장 관리 주체와 사후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수공양항만공사(YGPA)를 주체로 한 공공개발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 동안 여수신항 일대에서 개최됐다. 104개 나라 10개 국제기구, 820만 3,956명이 참여해 해양과 연안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해양에 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가장 작은 도시에서 개최한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받았다. /오선우 기자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현안해결 ‘쟁걸음’

국토부장관에 아이파크 대책 건의
전남 SOC사업 조기추진 요청도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22일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 원희룡 장관을 예방하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입주예정자 주거 대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예정자들이 긴급생계용도 대출(1억5,000만원)만으로는 대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중도금 대출 금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진 도당위원장도 이날 원 장관에게 전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조기추진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우주강국 건설에 필요한 국가간

선도로망 확충사업인 ‘광주3순환-순천-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해안권 연계 교통망 구축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흥-고흥(독량도) 연륙교 건설’ 사업 등에 대한 국가사업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전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교통망 구축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 SOC사업의 조기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이재명, 5·18 민주묘지 참배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은 24일 “강하고 유능한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평화 인권 자유 연대의 광주 정신이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치 위기 그리고 민생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하라”

광주시의회, 성명 발표
광주시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김홍빈 대장의 등반은 코로나19

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힘이 됐고 전 세계의 귀감이 됐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다”며 “장애인으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그의 삶과 도전은 개인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시의원들은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쓴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지난해 광주산악연맹을 상대로 청구했다”며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그의 삶,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선부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정부는 김홍빈 대장 수색·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할 것 ▲국회는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에 지시해 지출한 구상권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NEW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인삼인성 성분인 CK 발효 배양 *기부물질도 +12.3%, 탄력 +0.2%, 주름 25.9% 인성력을 성분 4주 후 사용 결과(대상: 30~40세, 31명) 시험기간: 2022년 05월 09일~2022년 05월 09일